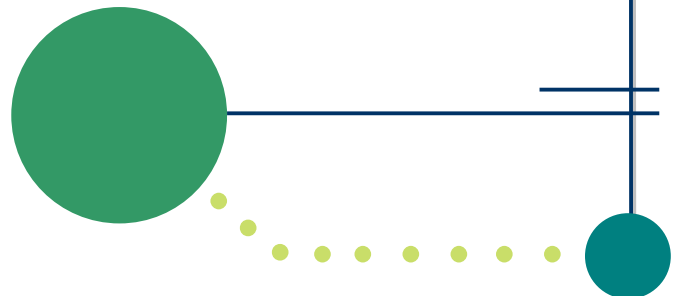




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물류업체 Synergex, 브라질에 콘솔게임 6종 출시 예고
- 브라질 대학에서 개발한 역사학습용 무료게임 등장
- 브라질 Sao Paulo에서 게임 개발자 워크숍 개막



물류업체 Synergex, 브라질에 콘솔게임 6종 출시 예고

● Synergex, 브라질에 콘솔게임 출시 예정

SYNERGEX

- ◆ 물류업체 Synergex가 브라질 시장에 콘솔 및 PC게임 6종을 9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브라질 게임웹진 Gamer Reporter가 지난 9월 11일 보도했음
 - 출시 예정인 콘솔 및 PC게임은 'Resident Evil 5'(PC), 'Marvel: Ultimate Alliance 2'(Wii/NDS / PSP / PS3 / PS2 / Xbox 360), 'Order Of War'(PC), 'Ninja Gaiden Sigma 2'(PS3), 'Kingdom Hearts 358 / 2 Days'(DS), 'Tornado Outbreak'(Wii /Xbox 360 /PS3) 등 총 6종임
 - 해당 타이틀의 가격 및 출시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

● 배경

- ◆ Synergex는 Sony DADC Brazil과의 게임유통 계약 사실을 지난 7월 중순 발표했고 자사의 물류 운송망을 기반으로 기타 퍼블리셔들과의 제휴도 확대하고 있음
 - Sony DADC와의 PlayStation 타이틀 계약과 관련, Synergex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파라과이, 칠레, 콜롬비아 등 남미 각국을 대상으로 마케팅, 유통, 언어 현지화, 고객지원 등 퍼블리셔로서의 제반 업무를 담당
 - Sony DADC는 브라질 북동부 Manaus 市の 무역자유구역에서 해당 게임들의 패키지를 직접 생산(디스크 복사 및 포장)해 납품할 예정
 - 이처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, 종전의 통상 가격 대비 30% 가량 게임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남미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는 것이 Synergex의 설명

 www.shipitnow.com/

브라질 대학에서 개발한 역사학습용 무료게임 등장



●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게 겨냥

- ◆ 브라질 Pará 연방대학(UFPA) 학생들이 개발한 교육용 게임 ‘Cabanagem Rebolt’가 시연용 게임기 설치를 시작으로 보급의 첫 발을 뒀다고 현지 뉴스사이트(Game Reporter)가 지난 9월 15일 보도했음
- ◆ ‘Cabanagem Rebolt’는 게임을 통해 Pará 州의 역사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타이틀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겨냥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나 일반인에게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됨

브라질 Sao Paulo에서 게임 개발자 워크숍 개막

🌐 브라질, 게임 개발자 워크숍 개최



- ◆ 브라질 게임 개발자 워크숍이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Sao Paulo에서 개최됐음
 - 이번 워크숍은 3D 툴(tool) 사용법, 게임 에디팅(Editing), 게임 AI(Artificial Intelligence)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5강의씩 총 15개 강의로 구성됨
 - 강의를 맡은 Nicholas Lima de Souza는 ‘Ragnarok Online’ 등의 온라인게임 제작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게임시장에 이름을 알렸고 현재 Ubisoft Brazil에서 근무 중임
 - 또 한 명의 강사인 Paulo Roberto Nova는 ‘Call of Duty’, ‘Double Dragon’, ‘Metal Slug’, ‘California Games’, ‘Blade Trinity’ 등 다수의 모바일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이며 게임업체 ‘Imagine Play’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함
 - 해당 워크숍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 인원은 강좌당 20명으로 한정됨

 www.sesisp.org.br